

# 한국-중국-러시아 잇는 가스관 건설

## 한국, 가스 수입비용 절감 가능 ... 2003년 10월 건설계획 합의 전망

한국, 중국, 러시아 3개 관련기업이 참여하는 120억달러, 4900km의 시베리아 가스 수송관 건설계획이 협의를 시작한지 5년만인 2003년 10월 최종 합의·서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와 함께 계획을 추진중인 OAO Russia Petroleum의 헤리 그리피스 부이사는 3사가 10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최종 서명할 것이며 정부 승인을 거쳐 공사가 시작되면 2008년부터 한국과 중국에 가스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관이 완공되면 세계 2위의 선박운송 가스 수입국인 한국은 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이정보다 훨씬 많은 규모인 한해 100억m<sup>3</sup>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은 석탄 과다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소재 다이와증권의 케이스 리 분석가는 중국이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우려해 앞으로 옛 소련 지역에서 에너지 수입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3개국이 합의한 가스관 경로는 바이칼호 부근에서 시작해 몽골 접경지역을 지나 하얼빈을 거쳐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 서해를 통해 한국에 이르는 것으로 합의됐다.

그리피스 부이사는 최근의 북한핵 위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정치·경제적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Chemical Journal 2003/08/19>